



국무조정실  
국무총리비서실

# 보도자료

(배포) 2022. 2. 25(금)

**2월 25일(금) 15:00 이후 사용**

비고

\* 2.25. 15:00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
# 공동배포 : 국조실, 외교부, 국방부, 환경부, 국토부

담당

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

과장 박상철, 사무관 백승엽  
(044-200-2577, 2581)

과장 방진석, 서기관 송영진  
(044-200-2585, 2584)

외교부 한미안보협력2과

과장 박승언, 서기관 김보람  
(02-2100-7843, 7841)

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

과장 양원석, 사무관 은승환  
(02-748-5890, 5875)

환경부 토양지하수과

과장 염정섭, 사무관 안성보  
(044-201-7170, 7174)

국토부 공원정책과

과장 김현진, 사무관 김민정  
(02-2131-2030, 2036)

## 용산기지 올해 상반기까지 1/4 순차적 반환 추진

### -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도 반환 -

- ▶ 용산기지 금일 16만5천㎡, 상반기까지 상당 규모 → 용산공원 조성에 탄력
- ▶ 캠프 레드클라우드(의정부), 장기 미반환기지에서 지역물류 허브로 탈바꿈
- ▶ 캠프 스탠리 취수장(의정부), 홍수피해 예방과 국민안전 위해 우선 반환
- ▶ ‘사용중 기지 환경관리 강화’를 위해 평시 환경정보 공유, 한미 사고대응 체계 개선 →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
- ▶ 앞으로도 한미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△잔여 미군기지 반환 △환경협의를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에 공감대

- 정부는 오늘(2.25,금) 오후,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(SOFA)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.
  - 아울러, 양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하여, △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△환경관리 강화방안 △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  
-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하여 왔습니다.
  - 오늘 16.5만㎡ 반환에 이어,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, 우리나라 최초 국가 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  - 아울러,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㎡ 규모이며, 의정부시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 - 또한, 캠프 스탠리 취수장(1천㎡)도 반환 받았으며, 이로 인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특히, 한미 양측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·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약체 등을 가동하여 환경분야 협의회도 진행하였습니다.
- 그 결과, △평시 환경정보 공유 △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△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하여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.
-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- 정부는 이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·국방부·환경부·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, 부처간 입장을 수시로 조율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왔습니다.
- 또한, 한미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SOFA 채널은 물론 외교·국방 분야의 다양한 고위급 협의채널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